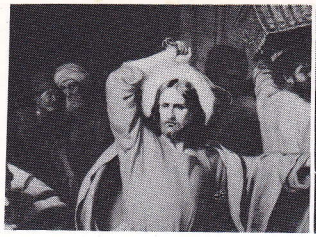
성도의 벗

2
1984



3

17

47

성도의 벗 2 1984

차 례

화평의 대가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1

예절바르게 지혜의 말씀을 지킴 ····· 로버트 이 웰즈 장로 ····· 9

이 결혼이 꽃피게 하자! ····· 제임스 엠 하퍼 ····· 13

열매를 거둔 메시지 ····· 제인 일레인 래티모어 ····· 20

조셉 앤더슨 장로 ····· 브랙 잉글런드 ····· 22

빛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 스펜서 제이 콘디 ····· 32

"성도로서" ····· 브랜트 쉰들러 ····· 34

영원의 시현 ····· 론 린드 ····· 37

심심풀이 ····· 로버타 엘 페어롤 ····· 42

친구가 친구에게 ····· 43

목이 마르지 않아요? ····· 에이치 켄트 래플리 ····· 46

이노스의 기도 ····· 49

해외 소식 ····· 51

지역 소식 ····· 5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밸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퍼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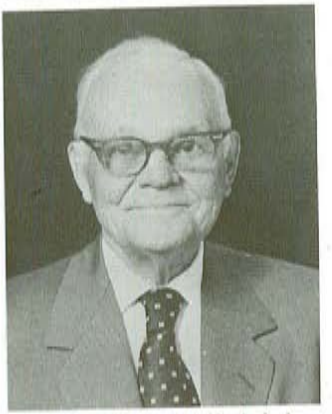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22호, 제20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27KO PRINT IN SEOUL, KOREA 2/84

© 198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화평의 대가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이 메시지는 롬니 부대관장이 전에 전하신
말씀으로 그분의 지시에 따라 게재함.

내가 화평의 대가라는 주제로 말씀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화평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나 바울이 말한 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딤후3 : 7)는 것 같으며 우리는 또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찌라도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찌라도 깨면 곤비"(이사야 29 : 7, 8)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군에 복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싸웠읍니다. 나의 맏아들이 제2차 대전(1914～1918) 중에 군에 복무하고 있었을 때 당국은 그에게 자유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읍니다. 과거 수십년간 똑같은 설명이 되풀이 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평을 찾는데 그렇게 참담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기꺼이 화평을 위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선 목적은 바로 그 대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자신 안에서의 조화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라고 생

각할 수 있으며, 이 개념에는 사전적인 정의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사전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화평과 조화와 상대되는 상태를 모순, 투쟁, 논쟁, 다툼과 전쟁으로 정의하고 있읍니다.

경전에 비추어 화평에 대한 이 두 가지 설명과 이것과 대조되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나는 나의 경우를 내가 믿고 있는 바 경전에 근거를 두도록 합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경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육체의 일은…곧 음행과…호색과 우상 숭배와…투기와 술취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라디아서 5 : 19-21)이 육체의 일들이 화평과 조화와는 반대되는 것인 모순, 투쟁, 논쟁, 다툼, 전쟁과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라디아서 5 : 22-23)라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의 요소입니다.

이 설명에서 화평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바꾸어 설명하자면, 루시퍼는 "분쟁의 아비"(니삼11 : 29)이며, 화평의 적이므로 화평의 대가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부인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이며 그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반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뜻에 따라 고대로부터 사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읍니다. 그러나 사실 루시퍼는 영의 존재이며 예수님과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의 존재로 있었던 것과 같이 그도 그러했읍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는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이사야는 그를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렀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이사야 14 : 12)라고 탄식했읍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읍니다. 그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는 천군의 삼분지일과 함께 쫓겨 내려와서…"사탄이 되었나니…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매혹케 하며,…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곧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자"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서 4 : 3-4참조)

사탄의 꾀임에 빠져 속아 넘어간 자들 가운데 코리호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부인했으므로 벙어리가 된 자였읍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이렇게 썼읍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매 벙어리가 된 줄 아노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이가 없음을 알며, 사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으나,

"보라 악마가 천사의 모양으로 내게 나타나 나를 속여 말하기를, 가라, 가서 알지 못한 하나님을 따라가 방황하는 이 백성을 구하라 하였고,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는지라 내가 사람들에게 꼭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악마의 말을 가르쳤고 백성들이 음란한 것을 즐거하매 자꾸 가르쳐 크게 성공하게 되어 드디어는 가르치는 바가 참된 것이라고 믿게 되

었으며, 이런 사유로 진리를 거역하였고 결국은 이 큰 저주를 받았노라."(앨마서 30 : 52-53)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리호어는 자신이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면 사탄도 존재하며 하나님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현대의 많은 코리호어는 우리의 시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니파이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읍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좋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 맬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니이 28 : 20-22)

이제 우리는 악마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다는 이 말에 대해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악마도 존재하기 때문에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곳에 화평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읍니다. 더욱이나 사탄과 함께 평화스럽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탄은 화평과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협조할 수 없으며 그는 단지 육의 일만 증진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나이서 7 : 17)

화평이 존속하기 이전에 사탄의 세력이 철저히 분쇄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배반이 있은 후, 하늘에서조차 그와 더불어 화평은 존속될 수 없읍니다.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탄과 함께 일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났읍니다. 그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쫓아 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 : 24)

지상 생활이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양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는 시련의 시기입니다. 한편은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이며, 다른 한편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행사함에 있어 전자이나 다른 후자를 따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자를 따를 때의 보상은 성령의 열매 곧 화평이며 후자를 따를 때의 보상은 육체의 일 곧 화평의 반대인 것입니다.

4천년간 인간의 영혼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사탄에 의해 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읍니다. 지상의 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시달려 온 세상에 만연된 방탕과 우상 숭배와 다툼과 유혈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 사탄은 언제나 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의 일은 번창되어 왔으나 화평의 시대는 겨우 두 시대 밖에는 없었읍니다. 또 다른 시대는 아직 이르지 않았읍니다.

예수께서 니파인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신 후 니파인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얻었읍니다. 다음은 그들이 행했던 방법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많은 백성들이 저들에게로 와서 저희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성신을 받았느니라. 삼십 육년에 이르러 온 땅의 백성들이 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그 결과 "백성들간에 다툼이나 분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한 덩어리가 되었더라"(니파이사서 1-2,15-17절 참조)

거의 두 세기 동안 이러한 상태가 그들 가운데 계속되었읍니다. 그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육체의 일에 마음을 돌리고 "백성들 중에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자가 있어…계급이 생기게 되어 교회를 짓되 저들의 이익을 위하여,…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의 모두 부정하는 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꼭같은 교리가 있었읍니다. 이제 이러한 교리들은 "그 간악함과 또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의 권세로 인하여 크게 번창하였"읍니다.(니파이사서 24-28절) 니파이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히 따랐던 두 세기 동안에는 완전한 화평을 누렸으나 이와 같이 사탄에게 굴복했던 두 세기 동안에는 내란으로 완전히 멸망되었읍니다.

화평을 얻었던 또 다른 백성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에녹 백성들이었읍니다. 그들은 니파이 백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화평을 얻었고 그들은 동일한 행복을 누렸읍니다. 그러나 에녹 백성들은 니파이 백성들처럼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며 육체의 일로 돌아가지도 않았읍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 의롭게 생활하여 "주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으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도시를 세워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이라 칭하"였읍니다. "때가 지나매 시온이 하늘로 들리워" 간 것입니다.(모세서 7 : 16-21)

에녹의 이 백성들은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 가운데 내가 아는 한 영원히 완전한 화평을 얻었던 유일한 자들이었읍니다.

니파이 백성들과 에녹의 백성들에게 화평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화평의 대가이며 이것이 화평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복지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태초부터 화평에 이르는 이 길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 이후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읍니다. 그분께서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게 되는 큰 불행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의 음성을 높여 왔읍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육적인 일

에녹과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도시를 세웠으며 그 도시는 하늘로 들리워 올라갔다.

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킬 것이며, 만일 두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면 그들은 각각 스스로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켜 서로 싸울 것이며, 만일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면 한 사회가 커다란 압박과 다툼으로 가득 찰 것이며,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탄에게 넘어간다면 범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이사야서 57 : 20-21)

육체의 일이 널리 적용되는 것과 같이, 화평의 복음도 그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는 자신의 내부에 화평을 얻으며 만일 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 화평을 얻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만일 시민이 그렇게 한다면 한 나라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향유하며 세상의 일들을 통제하는 국가가 많게 될 때, 세상에는 더이상 전쟁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를 성내게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진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화평이 얻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중립의 상태는 없읍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화평과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과 전쟁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만일 중립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요원하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화평의 대가를 치루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많은 방법을 시도했읍니다.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국제 평화 회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연맹에서에서 수많은 협정과 조약과 동맹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끝나버렸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업적과 지혜에 간절한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1914년 8

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당시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교의 명예 총장이며 저명한 평화의 창조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단 박사는 세계 정세로 보아 국가간의 큰 전쟁이란 불가능하며, 또 다른 국가간의 대전이란 결코 일어날 수도 없으며 나지도 않을 것이며 이 세계에 야만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읍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는 사업상의 이해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만일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할 만큼 성급하다면 은행가들은 그 포고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은행가의 음성이 주의를 집중 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소리를 높여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후 또 다른 그럴듯한 사실을 예로 들어 이 시대에 있어서의 전쟁의 예상 비용을 설명해 보인 다음 세상에는 대전쟁을 수개월 이상 수행할 만한 부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읍니다. 그가 말씀을 마치자 (탈매지 장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박사님 내가 박사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나를 믿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박사님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에 있어 박사님과 같이 저명한 학자의 추론에 우선해서 나는 예언자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제임스 이 탈매지, *리아호나* 5권 677—79 페이지)

조단 박사의 예언이 있은지 채 30년도 못 되어 세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겪었고 그 후 30년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 : 14)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가지려면 화평의 대가를 치룰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육천년 동안의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오늘날 지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육체의 일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평의 대가를 치를 도덕적인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이 평강의 왕자의 원죄를 적용해서 만족스러운 보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박넝쿨 아래서의 성낸 요나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읍니다. 나는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빛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분명한 빛을 가진 우리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 켜진 깜박거리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을 따라 가면서 넘어지며 생을 보내는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힘을 기울여야 하며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가르치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다른 면에 집착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망과 우울의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회복된 진리의 빛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화평의 대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 지상 생활이 회복된 진리의 빛이 찬란한 영광 속에서 빛나는 이 시대에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시대보다 더 살기좋은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라면 대파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구는 붕괴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며 지상의 모든 주민들이 멸망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화평의 영광스러운 복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 사건들 가운데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것을 확실히 아실 줄 믿으며…결국에는 의가 승리할 것이며, 암흑의 세력은 극복될 것이며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간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기로 굳게 약속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화평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화평이란 자신 안에서의 조화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입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을 얻는 것입니다.

2. 화평의 대가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결코 화평이란 존재할 수 없읍니다. 사탄과 함께 화평스럽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사업과 지혜에 간절한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이라는 분명한 빛을 가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 켜진 깜박거리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을 따라 안개 가운데서 넘어지며 우리의 생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4. 우리는 결국에는 의가 승리할 것이며, 암흑의 세력은 극복될 것이며 화평이 찾아올 것임의 확신합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화평의 대가에 관련된 여러분 개인의 느낌과 경험을 함께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경전 구절이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 효과적일까? 화평에 관련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예절바르게 지혜의 말씀을 지킴

우리와 표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접대받을 때의 예법상의 문제를 다룸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도 비회원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을 접대하고 또 접대받는 일을 여러 해 동안 계속했던 까닭에, 표준이 서로 상충될 때, 특히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한 방법을 말하고 내가 경험한 것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원 친구들을 접대할 때 집주인이 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들어 봅시다.

요즈음, 나의 아내와 나는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켜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는 재떨이가 없고, 커피나 술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도 내가 모는 차나 타고 다니는 조그만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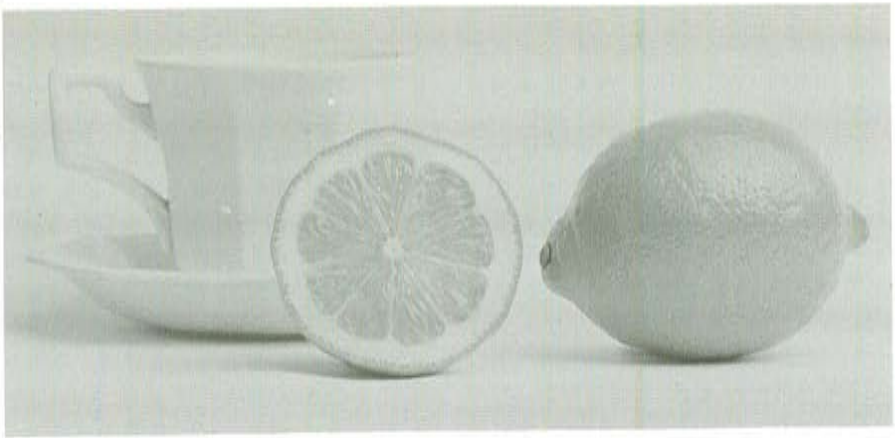
다.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읍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던 신혼 초의 어려웠던 때를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때 막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느 국제 은행 중 한 은행에서 직장을 구했읍니다. 그들은 우리를 남미로 보냈으며, 거기서 우리는 은행 친구들과 많은 고객 관리들을 접대해야 했읍니다. 나는 그 시절에 다른 문화권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들을 배웠읍니다. 각 문화권에는 호의와 우정 및 인정을 전달하기 위한 독특한 사회 양식과 의식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의식 중에는 지혜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의 어떤 경우에나, 주인의 입장에서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의식의 내용을 조절시키든가 그 의식에 스며들어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따스하고 친실되게 참여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공식 석상에서 전통적으로 샴페인 잔을 들어 축배하는 미묘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읍니다. 내가 손님의 입장이라면, 웨이터에게 샴페인 대신에 쥬스를 부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축배를 드는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인에게 여러분을 위해 기다려 달라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웨이터에게 쪽지를 전하는 것은 그에게 여러분을 기억케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여러분의 위치를 그에게 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훌륭하게 처리한 다음부터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해 왔읍니다. 어느 주요한 연회 석상에서 나는 그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주최국인 파라과이에 축배를 들어야 했읍니다. 나는 물을 사용하기로 했읍니다. 파라과이에서 주요한 은행 고객중 하나가 새로 생긴 도시 수도국이었는데, 그 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국에서 순수하고 맛좋은 오염되지 않은 물을 생산한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어 나는 물을 가득 담은 샴페인 잔을 들고 그 자리에 모인 인사들에게 말했읍니다. "나는 여러분의 잔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내 잔에는 가장 순수한 액체가 들어 있읍니다. 즉 아순시온시 수도 당국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 잔을 들어 대통령 각하에게, —그밖의 여러 인사들의 참석을 밝히면서—충심으로 축배를 듭니다." 치하의 내용은 아주 진지했고 그 반응은 아주 좋았읍니다. 그들은 모두 웃었으며, 아무도 "물몬식 축배"를 잊지 못했읍니다.

주인 자격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읍니다. 은행과의 협정에 따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그들이 웨이터나 요리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때는 "은행식"으로 접대했읍니다. 그러나 사업계의 친구들이 뜻하지 않게 방문하여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을 가족과 같이 대하겠읍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먹는 것만을 그들에게 접대하곤 했읍니다. 커피나 술은 내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때에, 친지들과의 모임이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방문으로 연회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손님들에게 이 모임은 "몰몬 파티"가 되겠다



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바를 이해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깜빡 잊고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가만히 상기시켜 주면 거의 예외없이 밖으로 나가곤 합니다.

주인이 되어 접대하는 데에는 비회원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손님으로 있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를 초대한 주인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 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도와 주고자 했읍니다. 우리는 우유가 아니라 쥬스가 가장 쉽게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읍니다. 나는 주인측에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자 "커피드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우리들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무 쥬스나 쥬스가 있으신지요?" 하고 대답한다면 우리를 보살피는 데서 크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들에게 쥬스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단순히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집에 갈 때면, 그들은 빠짐없이 쥬스를 준비해 두고 있었읍니다. 대개의 나라마다 지금은 곡식으로 만든 뜨거운 음료나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것은 커피나 홍차 대신으로 쉽게 마실 수 있읍니다. 나는 공식 만찬 석상에서 술이 나올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술 대신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 쥬스를 요구했읍니다. 그들은 대개 처음에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두번째에는 갖추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만찬 석상에 우리가 마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 쥬스를 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모르게 하려 애쓰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미있는 만찬 석상의 대화 주제로 삼았읍니다.

우리를 그들의 파티에 초대하는 여주인들은 대개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쥬스가 있는지, 또는 햄과 같은 것을 우리가 먹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채식주의자인지를 전화로 물어 오곤 했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으며, 그들은 그것이 그처럼 간단하다는 사실에 마음을 풀고는 했읍니다.

담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사람들은 사교적인 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예의상 담배를 권하는 사

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읍니다. 금연은 내가 참석한 국제 사회의 모임에서는 지혜의 표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리 알려 주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높은 수준에서 예절을 따지는 경우도 있읍니다. 영국식으로 기품있는 가정에서는 홍차 접대를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 마련된 예법으로 지키고 있읍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지극히 공식적이고 의례적이어서 몹시 인상적이며, 거의 상징적입니다. 차 대접은 때로는 연대가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은 장식물로 대접을 합니다. 컵과 접시 받침은 대개 섬세한 수입 도자기입니다. 여주인이 차 대접을 맡으며, 차 따르는 부인이 여주인을 도와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거나 컵안에 있는 차 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따라 줍니다. 여주인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탕을 하나만 넣으시겠어요? 두 개를 넣을까요?"

그럴 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두 가지 다 사양하겠읍니다. 그러나 빛이 고운 뜨거운 레몬차 한 잔이면 족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끓는 물을 레몬 조각에 따라 부을 수 있고, 여러분은 레몬차를 들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은쟁반의 맛있는 과자를 즐길 수 있읍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지혜의 말씀으로 인해 사회적인 입장이 궁지에 몰릴 필요는 한번도 없었읍니다. 쉬운 방법 또는 유머러스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아닙니다. 사양합니다."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읍니다. "다른 것을 갖다 드릴까요?"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불편을 겪거나 당황해야 할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대접하는 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주인이나 여주인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읍니다. 우리의 표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사실, 나는 우리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은 사교 모임은 기억할 수 없읍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대화의 시작은 지혜의 말씀이었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우리 입장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예절바르게 지혜의 말씀을 지킴"을 읽은 후, 다음 문제를 토론해 보도록한다.

1. 지혜의 말씀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자신과는 표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글쓴이의 제언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가?

3. 지혜의 말씀에 관한 여러분의 표준이 어떤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절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발견할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4. 어떤 조건에서 말일성도가 주인이 되어 손님을 청할 때 그의 손님들에게 그 자신의 표준을 지키도록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하에서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

5. 글쓴이가 묘사한 사교적인 비슷한 처지에 응하는 방법을 지금 결정해 두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우에 처해 있을 때 당황과 곤경을 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이 결혼이 꽃피게 하자!

제임스 엠 하피

나와 마주 앉은 젊은 여인은 자기에게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에 신전에서 결혼했으나, 일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꿈같은 사랑은 사라지고 남편에게 끌리던 마음은 일상 생활의 일에 파묻혀 사라지고 말았다고 했다. 내가 그녀에게 왜 남편은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편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녀는 말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와 더불어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

은 다 끝났어요!"

나는 결혼 생활 서약에 대하여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 보았다. 구세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며 성약의 원리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마태복음 19 : 5-6)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둘이 긴밀히 결속하여 있다는 강력한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랑은 배우자와 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 : 22)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수반된 감상적 및 육체적 매력만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성약이나 결합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사랑이란 인간이 중요한 생활 경험을 나누는 중에 일어나는 조용하고도 안정된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랑은 모두 중요한 것이며 훌륭한 결혼 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낭만적인 사랑은 대개 지나치게 되고 참된 결합으로 이끄는 성약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로 봉직하는 동안 나는 한국 사람들의 많은 훌륭한 결혼 생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결혼이 부모에 의해 정해진다는 말을 듣고, 서로에 대한 낭만적인 애정을 먼저 키우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그처럼 잘 결합될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하게 생각했다. 결혼 성약에 대해 갖고 있던 좁은 식견으로 인해, 나는 애정을 느끼는 것만이 결합시키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사랑을 약속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 원리를 배웠다. 두 사람은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 애써 노력하는 중에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질병이나 역경이 닥쳐 배우자가 자신을 희생시켜 가며 상대방을 위해 돕고 보살펴 나가는 중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진보해 나갈 때, 사랑은 자라게 된다. 사랑이 결혼 생활과 함께 찾아와 배우자와 함께 자라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다면 기혼 부부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언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1. 위기의 때에는 함께 끌어당긴다.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아 강화될 수도 있다. 개중에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결혼 생활로부터의 도피의 구실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애정과 협조를 받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생의 시련은 헌신적인 사랑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최근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상한 박테리아균에 감염되어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내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바깥 일을 정리했다. 3주간의 병고를 치르는 동안 가족을 보살피는 나의 봉사 행위가 우리를 강하게 결속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곧 분명하

게 드러났다. 그러한 생의 고난으로 때로는 부부가 떨어져 있게 되는 수도 있으나, 위기가 오히려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대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봉사하기로 미리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봉사를 함으로써 결심이 따르게 되기도 한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충정이 굳어지는 것이다.

결혼 관계는 아름다운 희귀종 꽃을 가꾸는 것과 같다. 우리는 씨를 뿌린 다음 물과 양분과 토양과 빛을 주어 꽃을 가꾼다. 이러한 과정의 섬세한 균형이 깨어지면, 꽃의 성장과 아름다움은 잠시 사그러진다. 그러나 필요한 양분의 균형을 갖추기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여 보살피고 그것이 자라 아름답게 꽃피도록 일하는 가운데 그러한 성취를 위한 굳은 결의가 서게 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결혼한 부부의 사랑과 역경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잔잔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큰 평안을 이룰 수 있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부부는 가난과 질병과 실망과 실패 또는 가족의 사망은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그 평안을 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이기심이 끼어 들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성공할 수 있읍니다. 완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는 부모를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결속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1930년대의 공황기에 미국에서의 이혼율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가난과 실패와 실망이 부모를 더욱 굳게 매어 주었던 것이다. 번영이 파멸시킬 수 있는 관계를 역경이 더욱 굳게 결속시킨 것이다."(결혼과 이혼,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922페이지)

나는 내 결혼 생활에서 외부의 어려운 나 자신을 아내로부터 몰아 내지 않도록 단단한 결심을 했다.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 외에도 아내가 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아내와 나 사이를 갈라 놓는다면, 그것은 나를 가장 훌륭하게 도와 위기를 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공통 목표를 정함

부부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때라도,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므로써 두 사람을 함께 매어 주는 유대를 되살릴 수 있다. 부부가 상호간의 차이점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서로의 염원을 강조하여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이 원리를 소년단 지도자로서 두 그룹의 소년들에게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배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연후에, 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저들에게 부여했다. 저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뭉쳤으며 우리는 그날 이후의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겪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나는 어느 부부가 공통된 취미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아내는 책을 읽기 좋아했으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구기 운동을 좋아했으나, 아내는 신체적인 문제

로 운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차이는 끝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결국 나는 그들이 함께 도자기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두 사람 다 그러한 것은 시도해 보려 하지 않았던 터라, 그것은 그들에게 새롭고 공통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 효험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은 공동 목표를 향해 일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으로 그들은 점차로 서로의 차이점을 잊게 되었다.

2. 배우자를 키우는 방법을 추구함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스스로에 대하여 보다 훌륭하다고 느끼도록 최근에 무엇을 했는가?" 서로의 자존심을 항상시키려 결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매우 충실하게 된다. 상대방이 그 느낌에서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성공하게 된다. 그밖에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성장하도록 기꺼이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서로 영적인 면을 추구하거나, 지적인 발전 및 신체 단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잔소리를 하거나 성가신 요구로 그들을 실망시키기 보다는,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특정한 면에서 배우자가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목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충정을 지니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합당한 자세가 갖추어질 것이다.

키운다는 것은 또한, 배우자에게서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와 비교하여 연구해 본 결과 나타난 차이점의 하나는 매일 매일 얼마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적어도 삼분지 이를 배우자와 서로에게 기분좋고 긍정적이며 푸근한 것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규칙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에 관해 말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낸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4.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배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에베소서 5 : 28-29). 우리가 아무것도 제시해 준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헌신하기가 극히 힘들다. 우리가 배우자의 약점만을 주로 들추어 낼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때로 마음속으로 비천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 볼 때,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어떤 일을 완수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귀기울여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품고 있는 사랑의 정도를 알아보는 열쇠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 한 다른 과제는 그들 스스로가 성공적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5. 항상 마음을 터놓고 배우자를 새롭게 이해하려 노력함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항상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일생을 함께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성장하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결혼 생활은 늘 흥미진진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재미있고 새로운 사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남편은 최근에 자기 아내가 정치적 인물들에 관하여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녀는 각 후보의 정견을 연구해 보고 각 후보의 주장을 분석했다. 그는 아내가 연구한 것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중에 아내를 새롭게 존중하게 되었다. 다른 부부는 각자 읽은 책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낸다. 남편은 책읽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내가 책을 읽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 가장 높이 살만한 점은 그들이 토론하는 중에 남편은 아내의 가치관과 느낌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활기차고 진취적인 것이 되고 있다.

6. 결혼 생활을 최우선으로 함

어떤 부모들은 서로에 대해서 보다는 자녀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녀들도 부모 상호간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려 애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태의 발생은 자녀나 부모 그 어느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밖의 사람이나 활동이 아내나 남편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끌 수 있다. 일이나 여가와 친구들도 결혼 성약을 강하게 지속시키고자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하여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또 계획함으로써 이것을 방지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결혼의 상징이 되는 것을 새롭게 함

결혼 기념일은 결혼 성약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행사이다. 결혼이나 구애 기간과 관련된 기타 사건이나 장소도 역시 상징이 될 수 있다. 꽃을 주거나, 편지를 쓰거나, 특별 기념 행사를 갖는 등 의미를 새롭게 하므로써 부부는 그들의 유대를 상기하게 된다. 어떤 부부는 주말이 되면 자녀들을 유능한 아기보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들 곁을 멀리 떠날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습관은 "함께 하는 유대"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나의 부모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들의 결속을 나타낸 상징에서 분명해졌다. 부모의 결혼 기념일에는 대단히 큰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다른 때에도, 외면상의 상징으로 그들의 결혼 성약을 새롭게 해주었다. 나의 부친이 열 두 송이의 장미꽃을 나의 모친에게 선사했을 때 어머니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나는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8. 복음으로 결혼 생활의 터를 닦음

해의 왕국의 생활에도 결코 다함이 없는 결혼 성약의 결의가 포함된다.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생활은 배우자와 가족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결혼을 하면, 그들은 어느 한쪽만이 발전하기 보다는 영적으로 둘이 함께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전 결혼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헌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

열매를 거둔 메시지

제이 일레인 래티모어

1977년 3월말이었다. 나도 딸기를 심기 위해 교사로 있는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한데 모여 들어 험악하게 어두워졌다. 나도 냉장고에서 딸기 모종을 꺼내어 폭풍우가 내리기 전에 따스한 흙속에 심었다. 남부 아리조나에서는 비가 온다는 것이 귀하고 반가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나를 대신해서 자연이 물을 뿌려 주는 격이므로, 모종을 번 후 딸기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도 모종을 하면서 행운을 얻게 된 것을 자축하고, 6월이 되면 거두어 들이게 될 싱싱한 빨간 열매를 흐뭇하게 꿈꾸었다. 하늘을 힐끗 본 나는 내가 딸기 모종과 더불어 빗물에 흠뻑 젖어 버리지 않으려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빨리 심어 나갔다. 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 내다가 흙이 얼굴

에 길게 자국을 남겼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거름 냄새도 풍겼다. 잠시 허리를 펴고 내 모습을 살펴보고, 냄새를 맡던 나는 들판 저편에서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의 작은 노부인들을 보았다. 나의 방문 교사들이었다.

나는 거의 일년 동안 교회에서 비활동으로 지냈지만, 방문 교사들이 나의 집으로 오는 것은 항상 허용해 오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들이 귀찮게 생각될 때가 많았다. 그것은 그들의 태도가 항상 친절하고 예절발랐으나, 그들의 방문은 내가 내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기타 가족 문제로 시달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 씁쓸한 원망의 감정만 남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정을 그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내가 그들을 속였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들은 전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기색이 없었다. 세번째 수요일에는 그들은 어김없이 방문하여 간증을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며, 내 아이들을 칭찬해 주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과자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내가 자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들은 조금도 단념하지 않았고, 내가 거친 말을 해도 개의치 않고 넘어갔다. 여러 달이 지나가도 그들은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항상 사랑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나도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그들에게 말을 들을 시간이 없노라고 말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말았다. 나일론 스타킹에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 입은 나의 방문 교사들은 그대로 딸기 밭으로 들어온 것이다. 내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트너 자매는 내 옆에서 딸기를 심기 시작했으며 메리 자매는 월례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 역시 딸기 심기를 계속했으며, 얼마 안되어 굵은 빗방울이 내려 흙이 움푹움푹 패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심어 나갔으며, 베티 자매 역시 읽기를 계속했다. 공식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사랑과 비이기심과 헌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 줄기를 감추기에 충분할 만큼 비가 쏟아지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실제로 얼매를 거둘 수 있는 메시지였다.

마지막 모종이 땅에 다 심어졌을 때쯤해서, 우리는 모두 흠뻑 젖어 버렸다. 나는 잠시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젖은 옷도 아랑곳없이 아직도 둘러볼 데가 있다고 하며 사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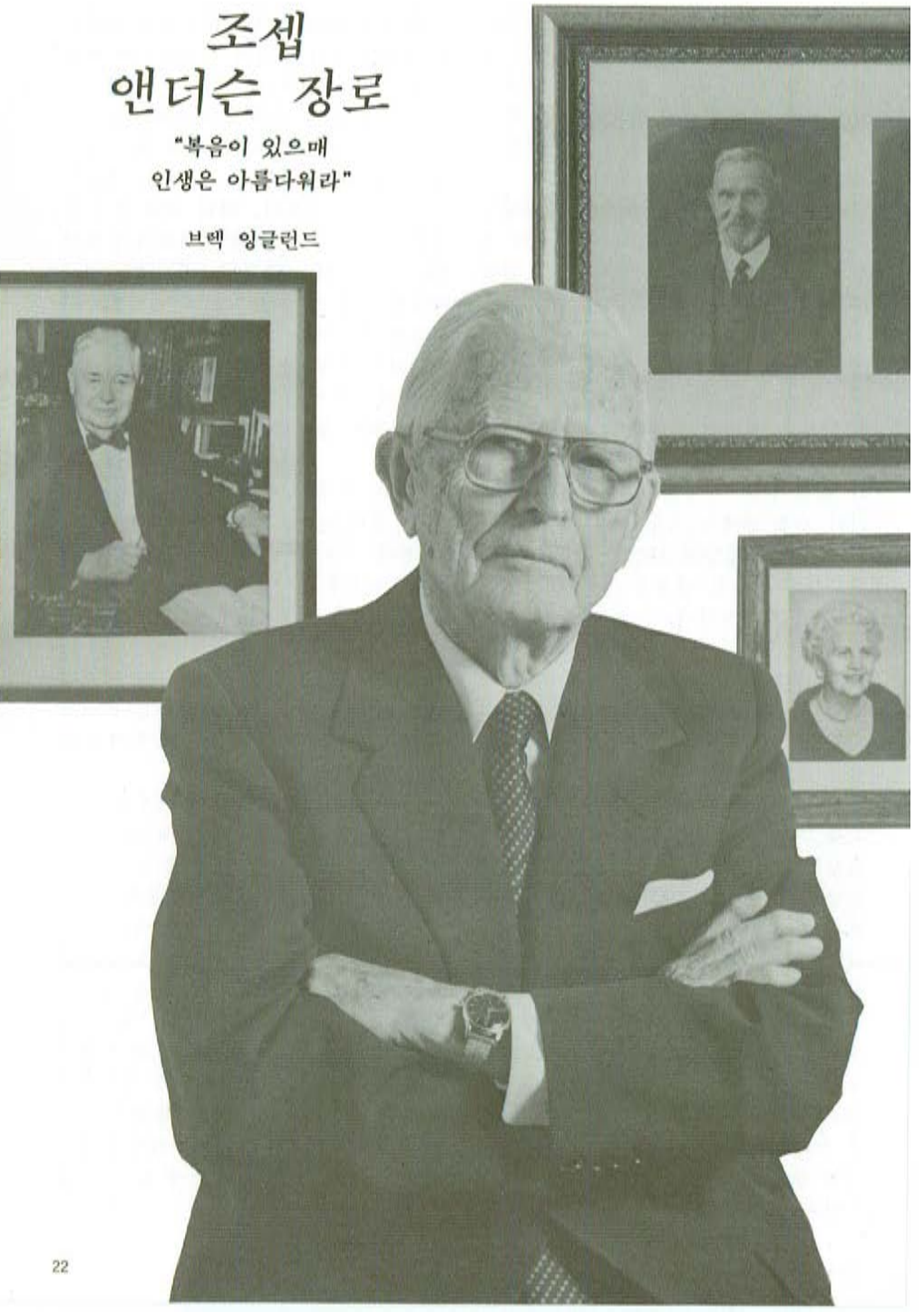
그들은 차 뒷좌석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바나나 빵을 내놓고,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정신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나를 남기고 떠났다.

3월에 비가 쏟아지던 날 이후로 여러 해가 흘렀다. 그 훌륭한 자매들은 알리가 없겠지만, 그들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은 내 삶에 기적을 이루어 놓았다. 그들이 보여 준 모범을 통해서 나는 나의 원망스런 감정을 몰아 내고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오는 축복을 구하게 되었다. 나는 딸기를 먹거나 "방문 교사"라는 말을 들을 때면 반드시 밭에서 말벗고 나서 일을 도와 준 그 사랑스런 자매들이 생각난다. 또 내 생활을 돌이켜 볼 때 그들의 성실성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조셉 앤더슨 장로

"복음이 있으매
인생은 아름다워라"

브렉 잉글런드



총관리 역원들이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를 교회의 제10대 대관장으로 지지하게 될 성회를 준비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신전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1970년 4월 연차 대회에는 역사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조셉 앤더슨은 모임의 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 1922년부터 대장관단 서기로 봉사한 이래 스미스 대관장이 그가 맞이하는 대관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그의 친구이기도 한 모든 총관리 역원들을 존경했으며 그들 또한 그를 사랑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은 그의 80회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 주었읍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총관리 역원들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많은 총관리 역원 자리가 이번 연차 대회에서 채워질 것이므로 서로가 나름대로 예상을 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대관장단에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를 새로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불렀으며 그 다음 조셉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주님은 그를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르셨다. 그는 놀라움으로 쳐다보면서 그가 제대로 들었는지 의아해 했다. 모든 총관리 역원들은—그가 섬기는 것을 명예롭게 느꼈던—그를 쳐다보았으며 이제 그가 그들과 같이 여겨질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읍니다."라고 그는 후에 말했다.

앤더슨 장로에게 있어서 그 부름은 1889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봉사의 생활 중에 더없는 기쁨이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11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조셉은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유타주에 있는 조그만 농촌 지역인 로이로 이사를 갔다. 이곳에서 조셉은 매우 영

적인 어머니인 이사벨라 왓트슨 앤더슨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 주고 싶었으며, 그러한 의도로 교회에 갔었지만 수줍음으로 인해 다만 "조셉"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어린 조셉의 아버지인 조지 앤더슨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민한 사람으로 후에는 유타주 위버시를 통과하는 철도의 한 구획 관리자가 된 석탄 광부였다. 앤더슨 장로가 기억하기로 아버지 조지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소년 시절에 그는 정직과 경건의 원리를 물려받았으며 그것은 후에 교회 대관장의 서기로서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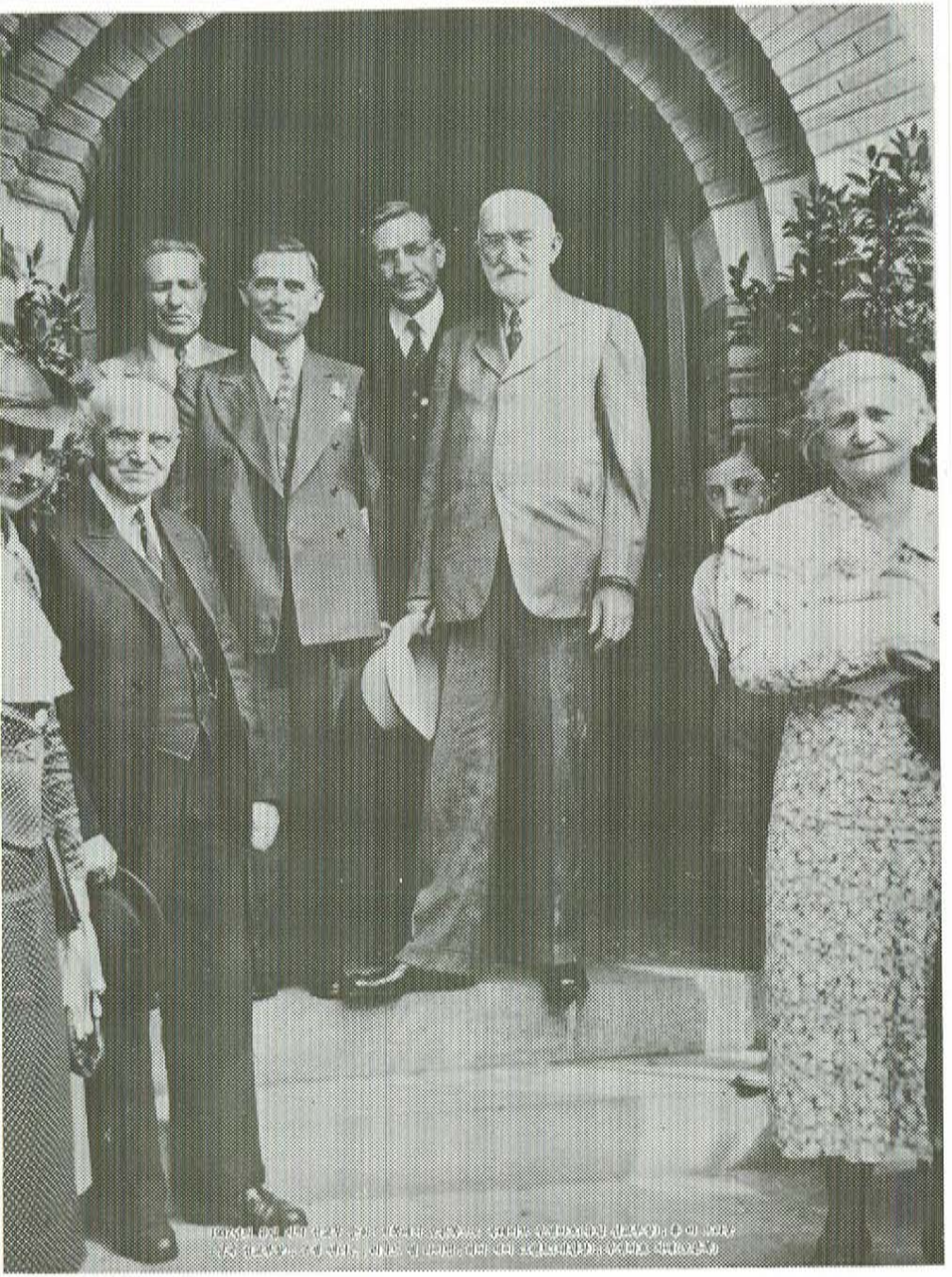
개척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셉 또한 일찌기 열심히 일하여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중요성을 배웠다. 그는 어렸을 때 유타주 로이에 있는 토마토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도록 고용되어 가을에는 그곳에서 일했으며 나머지 많은 시간들은 가축을 지키거나 가족 농장에 관개를 하기 위해 밤을 지새거나 하면서 보냈다. 그는 그의 말과 개와 함께 어린 나이에 안장없이 말을 타거나 친구들과 늙은 조랑말을 타고 경주할 만큼 전문적인 소몰이꾼이 되었다. 조셉은 조랑말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죽지 않고 13세에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그는 어린 아이였을 때 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의 와드 초등협회에서 서기로 봉사했다.

형과 누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다른 자녀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셉은 유타주 옥든 근처에 있는 위버 전문 학교(현 위버 주립 대학)에 등록을 했다. 그곳에서 조셉은 교장이며 영어 교사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선생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분은 자신이 생을 살아 온 방법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미남이며 정직한 분이며 뚜렷한 개성을 지닌 분이었다.

그의 선생님은 조셉이 부끄럼을 타기 때문에 뒤에 움추리고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조셉을 불러 많은 반원들 앞에서 기도를 하게 하거나 칠판에 적게 했는데 이것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식은땀이 나게 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선생 밑에서 보낸 전문 학교 시절은 그의 남은 생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면, 그가 영시를 공부했을 때 월터 스코트 경이 지은 "호수의 아가씨"라는 스코틀랜드의 고전시의 한 부분을 암송했는데 이것은 맥케이 교장이 아주 좋아했던 시였다. (그는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 최근에 돌아왔다.) 조셉의 언어에 대한 애착과 상업 과정에서 배운 속기에 대한 선천적인 재능으로 인해 후에 그는 서기로서의 경륜을 쌓게 된다.

조셉은 선생들의 권유에 따라 15세에 옥든 목재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는 한 달에 12,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방세와 식대로 지불되었음)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중요한 말에 색칠을 하는 것이 포함된 속기의 한 방법인 아주 어려운 피트먼 속기를 숙달했다. 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는 가장 뛰어난 "속기사"가 되리라고 맘을 먹었다.

조셉은 목재 회사에서 월급이 인상된다 할지라도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16세가 되기 전에 솔트레이크시로 갔다. 솔트레이크의 상인들은 속기, 타이핑,



및 사무실 직원으로 10대의 숙련공들을 쓰려 하지 않았지만 조셉은 연합 침차 및 기계 회사에 월 20,000원에 곧 취업이 되었다. 그는 부채를 지고 있는 타회사에서 돈을 받아오는 가장 유쾌하지 않은 일을 맡게 되었지만 그의 겸손하고 자애로운 성격으로 인해 그는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갔으며 그 회사의 총지배인의 비서가 되었다. 한편 그의 무뚝뚝하지만 이해심이 많은 사장이 그가 사무실에 들어온 때부터 자신의 말을 받아쓰게 시켰기 때문에 그의 속기술은 급격히 발전되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다정한 관계를 이루게 함에 있어 세상의 모든 속기 훈련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

솔트레이크시에서 6년간 일한 후에 조셉은 스위스-독일 선교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911년 10월에 떠났다. 스위스 쭈리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주어졌다.

"나는 상점 등에 걸려 있는 큰 독일어로 된 문귀들을 보고는 실제로 배우 걱정했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있을지 염려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전도하며, 공부함에 따라 "방언의 은사"로써 독일어를 빨리 배웠다. 그의 동반자는 그에게 매일 새 문장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배운 말은 소책자를 독일인 가정에 전해 주면서 하는 말인 "비테 레슨 지 디제스"(이것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를 배운 후보다 배우기 전에 더 많은 구도자를 모임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앤더슨 장로는 1914년 5월에 선교 지역으로부터 귀환했다. 그가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마 에티 피터슨양은 스위스에서 이민온 사람들을 위한 *더 유타 포스트*라는 솔트레이크 신문의 편집인인 휴고 디 이 피터슨씨의 딸이었다. "나는 검은색 머리지만 그녀는 금발이었으며 나는 그녀가 그 도시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라고 생각했었읍니다." 앤더슨 장로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호수가에 위치한 유명하고 오래 된 솔테아 유원지에서 수영하고 춤을 추고 있던 그녀에게 구혼을 했다. 그들은 1915년 11월 11일에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을 했다. 솔트레이크 사람들은 이 매력적인 한 쌍에 의해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노마 앤더슨양은 밝게 빛나는 금발 머리와 검은 눈을 갖고 있었으며 멋진 검은 콧수염을 기른 조셉은 유명한 영국 영화 배우인 로날드 콜만을 상기시켜 주었다.

조셉은 새로 꾸민 가정을 부양하기 위하여 상인 은행에 취직했으며 후에는 유타 언론 회사에서 일했지만 그의 일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속기말고 어떤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동안 속기사로 일해야 한다면 그 방면에서 가장 훌륭한 직책을 얻겠다고 결심했읍니다."

수년 동안 그는 솔트레이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소년 시절부터 알고 있고 존경해 온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그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랜트 대관장은 매우 말씀을 빨리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속기로 기록할 수 있었던 비서는 거의 없었다. 조셉은 두려움없이 그랜트 대관장이 태버내클에서 일요일 대회 말씀을 하시는 동안 청중석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 그는 조셉이 기록한 것을 보시고 감

명을 받으신 대관장의 요청으로 잠시 후에도 어셈블리 홀에서 행하신 그랜트 대관장의 또 다른 말씀도 기록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적기란 아주 힘들었읍니다. 그분은 설명이나 이야기나 시 또는 인용하는 말씀 등을 "마치 건초 기계"와 같이 빨리 뿜어 대셨읍니다." 후에 조셉은 조금 낙담을 했지만 그의 아내가 그를 격려해 주며 도서실에 가서 대관장의 참고문과 인용문 몇 가지를 복사해 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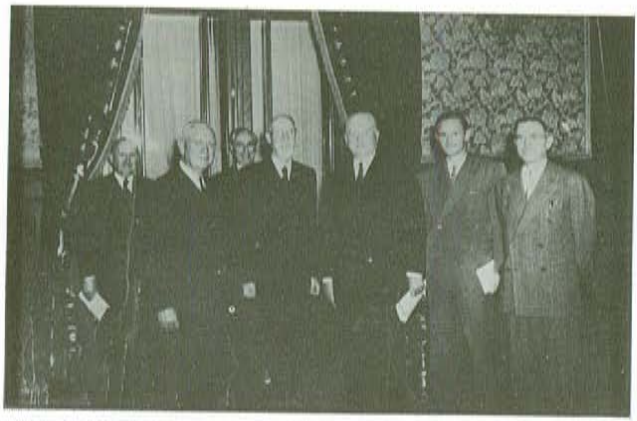
1922년 2월 1일에 조셉 앤더슨은 그랜트 대관장의 개인 비서가 되었는데 이것은 23년간 계속될 긴밀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사랑하는 믿음직하고 잊지 못할 이 명사는 조셉과 개인적인 친구가 된 것이다. 앤더슨 장로는 그랜트 대관장의 어느 성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관대함"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분의 회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돈으로 미망인 친구의 저당 증서까지 처분해 줄 정도로 궁핍한 사람들을 여러 번도와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샌디에고에서 일정적으로 대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관장은 조셉에게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고 했다. "나는 한번도 골프를 쳐 본 적이 없었읍니다만 '아니오'라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었읍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회상했다. 대관장은 골프를 가르쳐 주고 골프공을 한 통 준비해 놓은 다음 그들은 여러 번 공을 홀(티(tee)에서 그린(Green) 까지의 지역)로 쳤다. 다음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랜트 대관장은 심장 고동이 최약해짐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는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다. "조셉, 자네는 어제 아주 멋진 스트록을 여러 번 쳤었네' '고맙습니다. 대관장님, 아무래도 골프에 빠져 들 것 같습니다. 골프 클럽을 사서 열심히 배워야겠읍니다.' '골프 클럽에 대해선 염려 말게. 내가 사 주겠네.'"

대관장은 생명이 위급했었지만 다행히도 회복이 되어 5년간을 더 사셨다. 병상에서 그는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와 꽃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알기를 원했으며 손을 사용하기가 힘들었지만 일일이 그의 이름을 적어 답장을 주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셨읍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말했다. 88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그랜트 대관장은 그의 충실한 비서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조셉, 내가 자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있었나?" 그의 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어서 기뻤다. "대관장님은 저에게 결코 불친절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읍니다."

1922년에 조지 에프 깁스는 대관장단의 비서직을 은퇴했으며 조셉이 그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는 교회 역사상 그 지위에 오른 두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거의 50년간을 그 직에 머무르면서 대관장뿐만 아니라 대관장단을 위한 방대한 서한들을 다루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또한 22년 동안 보네빌레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했는데 33와드 감독관과 33와드 및 도글라스 와드의 여러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서 평의원으로 봉사했다.

대관장단의 서기로서 앤더슨 장로는 두 분의 보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특히 그랜트 대관장의 보좌였던 차알즈 더블류 니블리 부대관장이 다정하게 마음써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랜트 대관장은 너무 활동적이었기에 그분의 활동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그



1940년대말 조지 앨버트 스미스(중앙) 대관장과 함께 백시로 대통령을 방문한 조셉 앤더슨(맨 오른쪽) 커기에 있는 동안 그들은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스미스 대관장의 전폭)를 만났다. 조셉 앤더슨은 교회 역사상 대관장단의 비서에 부름받은 두번째 사람이었다.

의 서기/운전사에게 항상 쉽지만은 않았다. 니블리 부대관장은 여러 번 "허버 대관장님! 내일은 조셉을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읍니까?"라고 제안했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앤더슨 장로는 때때로 약간의 주말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었다.

대관장단의 서기로서의 임무 외에도 조셉은 연차 대회의 서기가 되었다. 초창기에 그는 대회 말씀을 속기로 적어 그것들을 모아 공식적인 대회 보고로 발행했었다. "우리가 기록하는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도 나는 속기로 말씀들을 적었읍니다." 조셉은 영감받은 한 마디의 말씀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으며 이러한 부름을 매우 즐거워했다. 그는 또한 수년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평의회에서 서기로도 즐겁게 봉사했다.

조셉은 총관리 역원들의 모범에 감사와 존경을 품게 되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구가 되었다. "이 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 특히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던 클러슨 장로와 전 사도였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와 같은 분들과 교분을 나누었던 지난날의 추억들을 늘 그리워했다. "언어학적인 면에서 탈매지 장로는 세상에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었으며 위대한 학자로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의 로얄 소사이어티(1739년 결성된 철학 협회)의 회원이며 웹스터 사전 위원회(미국 영어 사전 편찬 위원회)의 위원이었읍니다."

탈매지 장로는 말년에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조셉은 가끔 그가 모임에 참석하도록 신전 계단 오르는 것을 도왔다. 탈매지 장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 번 그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머물러 있곤 했었다. "그는 가끔 나를 그의 사무실로 올라 오게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약간 외로웠던 것같이 생각됩니다. 내가 밤에 늦게 귀가하면 아내는 으레 탈매지 박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교회 고등 평의회에서 앤더슨 장로와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마도 허버 제이 그랜트, 조셉 에프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보좌였던 제이 루벤 클

라크 이세 부대관장이었을 것이다. "단 몇 시간이라도 함께 지내지 않았던 날은 거의 없었읍니다."라고 그는 회상하고 있다. "그분은 나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았으며 그분도 가끔 내가 마치 아들과 같다고 말씀했읍니다. 이분은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글로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읍니다." 조셉에 대한 클라크 부대관장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조셉이 하는 일에 대해 나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훌륭한 형용사는 거의 다 써 버렸읍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셨다. "조셉은 겸손하지만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생에서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빚을 지고 있읍니다. 그에게 나의 고마움과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원까지라도 기다릴 것입니다."

수년 동안 총관리 역원과 함께 한 수많은 개인적인 경험들로 앤더슨 장로는 그들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가 1945년에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을 때 조셉은 대관장단의 서기로 머물러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는 스미스 대관장과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그분이 진실로 "사랑이 많은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미스 대관장이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고통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 배에 실은 옷 꾸러미에 자신의 오바코트를 올려놓았던 것을 지금도 회상하고 있다. 앤더슨 장로는 미국과 멕시코 대통령을 방문하러 같이 갔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씨를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게 해 놓고는 스미스 대관장은 멕시코의 아빌라 카마초우 대통령에게 몰몬경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19년 동안 조셉은 스미스 대관장을 위해 봉사했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밑에서 봉사했다. 자신의 소년 시절의 선생이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었다. 대관장과 앰마 레이 리그스 맥케이 자매는 또한 조셉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전설적인 것이 되었다. "그분은 항상 사랑이 많으셨고, 사려깊으시고, 정중하셨읍니다."라고 그는 회상하고 있다. 예언자가 임종을 앞두셨을 때 앤더슨 장로는 그분의 아파트에서 그분을 방문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침상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맥케이 자매에게 어떠냐고 물었읍니다. 그녀는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 큰아기에 대해 염려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매님의 큰아기로군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읍니다. '물론 그렇지요'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조셉은 거의 30년 동안 맥케이 대관장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에 대해 강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으며 교회의 영역이 그분이 관리하시는 동안 활발하게 넓혀지는 것을 알았다. 교회가 세계로 널리 영역을 넓혀가는 몇 년 동안 대관장단은 때때로 조셉의 조언을 구했는데 이것은 그의 오랜 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의 확실한 충고와 전문적인 의견은 사업계에서도 훌륭하게 적용되었다. 교회 일로 바쁘지 않은 때에는 그는 서기와 비서로서 40년간 봉사하면서 데저렛 출판사의 간부회에 속해 있었다. 그의 화일에는 대관장단의 대변인으로 제공한 교회에 관한 기사로 브리태니커사에서 수여한

멋진 증명서가 담겨 있다. 그 외에도 그는 조그만 설탕 회사와 철도 회사에서 그의 재능을 발휘했었는데 그는 거기서 부사장으로 일했다. 이러한 면에서의 그의 노력과 교회 봉사로 인하여 그는 *미국 인명 대사전*, *금융 및 산업 부분의 인물*, *종교 부분의 인물*과 같은 참고 서적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직후에도 앤더슨 장로는 교회 역사과의 관리 책임자로 평생 동안 해 온 교회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의 지도하에 '교회 역사과는 주요한 연구 설비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대한 기록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는 데까지 일을 확장해 나아갔다.

1977년에 앤더슨 장로는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2년 후 그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명예 회원으로 부분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앤더슨 장로의 은퇴는 단지 부분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의 나이 93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교회 사무실로 일하러 나갔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교회의 전 대관장들과 사도들의 사진들이 사랑스런 문귀와 함께 걸려 있었다. 그의 서가는 1973년에 자신이 출판한 *내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라는 회상록을 포함하여 복음에 관련된 많은 책들의 초판으로 천장까지 꽉 쌓여 있다. 사무실 의자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그는 불충분하고 헐기 왕성하게 보였으며 복음에 대한 간증의 힘은 쇠퇴하지 않고 있다.

"인생은 훌륭했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건강에 감사를 드리며 그의 활력과 신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축복과 운동의 덕택으로 돌렸다. 그는 거의 80년 동안 계속해 온 습관으로 지금도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수영을 하고 있으며 항상 해 온대로 오래 걷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읍니다. 건강의 율법에 순종하면 훌륭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도 앤더슨 장로가 연단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말씀할 때 강조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두드리기도 하며 그의 온 몸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간증으로 힘이 있었다.

그는 그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다정하게 권고하고 있다. "오,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구원하는 권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간청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도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따스한 우정 관계이다. 그의 음성에는 생색을 내는 티가 없으며 다만 자신의 간증의 기쁨을 형제와 같이 열심히 전하고자 할뿐이다.

그는 자신의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나는 결코 감독이 되어 본 적도 없으며 스테이크나 선교부를 관리한 적도 없읍니다."라고 말했다. 1970년 10월에 처음으로 맞이한 연차 대회 말씀에서 자신을 "점손하게 부적당하다"고 고백했었다. 그러나 그의 80세라는 연륜은 "대가를 치루는"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그 부름을 받아들일 수

가 있었다. 앤더슨 장로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1)라는 복음의 단순한 원리에서 확신을 얻고 있다. 그는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대가는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는 힘주어 말한다. "할인 가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고령의 나이로 앤더슨 장로는 이 원리를 입증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치름으로 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기쁜 관계"나 "사랑스런 경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복음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허한 생을 살기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인생이란 어떤 큰 목적으로 주어진 형상과 형태를 함께 취하지 않는 한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또한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도와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은 없읍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이 그의 비이기적인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세 명의 자녀들 즉 베트 조셉 알, 엘레인이 미소짓고 있는 사진을 아주 좋아하며 그것을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어 놓았다. 또한 그는 10명의 손자들과 25명의 증손자들에게서 큰 기쁨을 얻고 있는데 그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 청녀 상호 향상회 본부 임원회의 지도자로 20년 동안 봉사해 온 앤더슨 자매는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그녀의 남편이 말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만성적인 병으로 앤더슨 자매는 남편의 계속적이며 헌신적인 간호를 받아오고 있다. 자녀들은 그녀를 "매우 강인하고 품위있는 여성"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앤더슨 장로와 자매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유지했던 부드러운 가정의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회상하고 있다. "아빠는 결코 완고하지 않으셨으며 항상 부드럽고 겸손하셨읍니다."라고 한 딸이 말했다. 다른 딸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그녀의 생에서 낙담하고 있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 통의 격려 편지는 그녀의 모든 태도를 바꿔 놓았다. "그분은 결코 어떠한 종류의 불친절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우리들과 함께 참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자들과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다.

사업가, 대관장의 개인 비서, 주님의 교회에서의 총관리 역원—이러한 부름들은 조셉 앤더슨 장로의 생애를 구별짓는데 도움이 되었다.

영국 수상 베냐민 디즈레일리는 (1804—1881) 이렇게 기록했다. "인생이란 투쟁이며 노년에 후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셉 앤더슨 장로에게는 후회가 없다. 거의 1세기 전에 유타주 로이에 있는 언덕을 오르던 가난한 시골 소년은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후 얻은 평온한 결실에 대한 빛나는 증인으로서, 또한 영원한 발전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한 증거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

빛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스펜서 제이 콘디

사회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가 보는 사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흥미있는 실험으로 조사해 보고 있다. 어느 심리학자는 미소량의 폭발로 점화될 수 있는 밝은 빛이 들어 있는 작은 기계를 만들었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소량의 불꽃이 이는 것을 보면, 실제로 빛을 내는 이 기계는 안정되어 있어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그 빛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오토키네틱(자동 운동)현상이라는 것으로 이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실험의 첫단계에서 한 사람이(그를 빌이라고 하자면), 어두운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에게 작은 두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보이는 불빛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판단해 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의 판단은 처음에는 2센티미터, 두번째는 3센티미터, 세번째는 4센티미터라고 했다. 여러 모로 생각해 본 끝에 그는 평균적인 판단에 의해 3센티미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 다음 빌이 그 방에서 나오고, 수잔을 발광기에서 1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앉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빛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판단한 것을 말하게 했다. 그녀는 먼저 3센티미터라고 말한 다음, 2센티미터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약 1센티미터라는 평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이 녹음된 뒤에, 빌이 수잔과 더불어 방으로 돌아오게 한다.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빛이 터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여 말해 보게 한다. 첫번째 빛이 터진 후, 빌은 "3센티미터입니다."라고 말하고 수잔은 "1센티미터"라고 헤아린다. 다음 번에는 수잔이 "1.5센티미터"라고 말하고, 빌은 "2.5"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연이어 시험해 본 후에 그들은 빛이 매번 2센티미터씩 움직인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실험의 재미있는 결론은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 면에서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 *빛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변하는 것은 빛에 대한 우리의 개념일 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그들의 판단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견해를 나누게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으

나, 우리가 생활하는 매일 매일 생의 실험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영원한 진리를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응답한다면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모로나이 7 : 16)고 확인하셨다. 구세주께서는 또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 : 12) 이 빛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만일 그 빛이 우리에게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면, 움직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어두운 실험실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익숙한 경계표가 사라져 감에 따라 시야가 흐려지게 된다. 우리는 빛이 움직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은 "게임처럼 나쁘지 않은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자.

"나는 맹세는 많이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완전한 십일조는 내지 않으나,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내고 있다."

"나는 도덕적으로 조금 나쁘게 생각될 수 있는 영화는 가끔 보지만, 정말로 나쁜 영화는 보러 가지 않는다."

"나는 세금을 바치는 면에서 속이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만큼 나쁘게 하지는 않는다."

"내가 사실을 말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험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입는 옷이 조금 단정치 않게 보인다면, 학교에 다니는 애들 옷차림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니파이의 말에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이서 28 : 21)

빛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비정상적이고, 저속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접촉하는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것이 점점 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에 민감하게 듣지 못하게 된다. 소년 에연자 요셉에게 기도로 주님을 찾도록 용기를 부여해 준 위대한 서한을 쓴 야고보는 이 과정을 깊이있게 통찰해 보았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야고보서 1 : 12-15, 21)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젊은이 여러분은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베드로전서 2 : 9)해야 한다는 명을 받고 있다.

빛은 결코 움직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

내가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동안 점차 익숙해진 남부 아이다호의 여름과는 너무나 틀려서 일본 아와지섬에서 보낸 여름은 습도로 인해 거의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일본어의 장애를 극복하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뜨거운 여름 태양으로 인해 처음 몇 달간은 쉽게 피로를 느꼈다.

아와지섬은 고베와 오사카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조그만 섬이다. 이 조그만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모또는 전형적인 일본 냄새와 소리로 가득 찼으며 보기에도 그러했다. 근접해 있는 오사카와 고베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이곳의 문화는 서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아 오지 않고 있다. 비록 이 섬이 일본에서 대도시 지역 중의 하나인 오사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셈이며 이 변화없는 섬과 이웃 도시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단지 배일 운행되는 쾌속정과 페리뿐이었다.

이른 새벽 동이 텄을 때 나는 의자에 앉아 몸을 뒤로 재껴 의자의 뒷부분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무릎 위에 교리와 성약을 펴놓고 105편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1-2절을 대충 훑어보다가 3절에서 눈이 멈추었다. 나는 다시 읽어 보았다.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로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의아히 여기며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나의 몸이 뒤로 기우는 것을 느껴 뒤로 자빠지지 않으려고 재빨리 몸을 앞으로 일으켰다. 일본 아파트의 마루에 깔아 놓은 다다미 자리에 자빠지는 것이 그다지 아프지는 않겠지만 자존심이 있는 젊은 선교사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내 뒤에 누워 있는 선임 동반자의 침낭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밖에서는 즐거운 여치 소리가 아침 햇빛을 맞이하고 있으며 주변 논에 있는 벌레들이 여름 세레나데를 생동감있게 연주하고 있었다.

동반자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이번 주말에 가르치기로 되어 있는 신권에

관한 토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그 문장들을 입으로 연습해 보기 시작했다. 머리 속에서 그 문장들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쉽고 빠른데 반해 일본어를 발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항상 나를 아연케 했다. 아론 신권의 회복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낱말들을 기억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동안 습도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았다. 주의를 기울여 복잡한 문장 구문을 상기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나는 교회로 사용되는 큰 일본집의 바깥문이 슬그머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공부가 방해되는 것으로 인해 짜증스럽게 나가보니 새로 회원이 된 농아인 시누끼 형제가 평소와 같이 들린 것이었다.

시누끼 형제는 키가 작고 야윈 사람이었으며 매일 오래 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의 집은 작고 누추한 오막살이 집이었는데 수모또에서 벗어난 조그맣고 울퉁불퉁한 언덕 위를 조심스럽게 오르는 불안하게 가파른 길끝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이러한 외로운 생활은 그가 열심히 친구를 사귀도록 부채질 했을 것이며 자신이 귀머거리라는 사실도 게의치 않게 했다. 시누끼 형제는 내가 아와지에 도착하기 전에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친절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애착심을 갖게 되었다. 시누끼 형제는 수화를 아는 오사까에서 온 한 회원의 도움으로 회복된 복음을 배웠으며 침례의 축복을 받았다. 비록 농아와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나는 아주 기쁘게 농아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손짓이나 간단한 동작과 같은 몸동작으로 우리는 서로 놀라울 정도

로 친숙해질 수 있었다. 아직도 그가 말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끔 그의 크고 따스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복음 원리에 관한 이해와 간증의 깊이에 관해 생각해 보곤 했다.

시누끼 형제의 즐거운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동반자와 나는 그와 함께 걸으면서 가까운 상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농아 회원과 우정 증진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영들을 위해 이 습도높은 섬을 돌아다니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힘을 북돋우기로 결심했다. 우리 셋은 각자 아이스크림바를 하나씩 사서 오래 된 목조 건물 뒤에서 껍질을 벗겼는데 이 건물은 찌는듯한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아이스크림바는 예상 외로 맛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비싸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미가 당기게 했다. 누군가가 운이 좋아 아이스크림바를 다 먹은 후에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새겨진 일본인의 상징인 "아타리"를 찾게 되면 이것으로 다른 아이스크림바를 무료로 바꿀 수가 있었다. 이 가려진 막대기에서 일본인의 상징을 찾는 것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마음이 당기는 것이었다.

마치 본능적인 행위와 같이 나는 아이스크림바를 먹을 때 "아타리"라는 말이 새겨져 있을 만한 곳을 덮고 있는 흰 아이스크림 부분을 남겨 놓고 다른 부분을 먼저 먹었다. 이 마지막 남은 중요한 부분을 베어 먹으면 나는 다음 아이스크림바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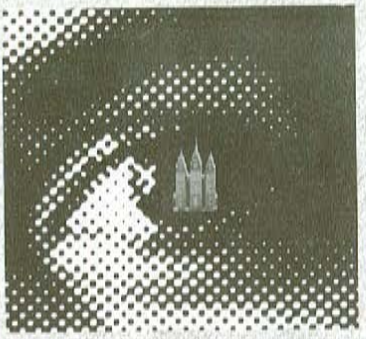
나는 이 부분을 먹으면서 혀로 막대기 위를 훑어 보았지만 밋밋했다. 막대기에는 일본인의 상징이 새겨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밋밋하다는 것을 눈으로 재차 확인했다. 내 동반자도 나와 같은 처지로 그의 빈 막대기에도 이 요술 단어는 새겨져 있지 않음을 알았다. 우리가 조금 안타까와 하고 있는 데 반해 시누끼 형제는 우리들보다는 운이 좋았다. "아타리"라는 글자가 그의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시누끼 형제가 갖고 있는 막대기를 부러운듯이 바라보다가 마치 위로라도 하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 농아 친구는 잠추어진 보물을 발견함으로 해서 기뻐했다. 시누끼 형제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나의 동반자와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시누끼 형제는 주저없이 그 막대기를 꼭 쥐고 좁은 길로 뛰어가더니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어린 소년에게 그 소중한 막대기를 건네 주었다. 마치 농아 친구의 미소가 옮겨 간 것같이 이 작은 소년의 얼굴은 막대기를 집자마자 금방 웃음을 띠면서 아이스크림과 바꾸기 위해 상점으로 향했다.

시누끼 형제는 번번찮은 두 선교사 친구에게로 돌아왔다. 우리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때 참된 비이기심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었다. 나는 분명히 시누끼 형제는 자신의 무언가를 나누어 줌으로 해서 "성도로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비록 어떤 사람이 말로 자신의 간증을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간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별개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없이 대화의 장벽은 사라지고, 우리 셋은 그때 완전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마음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

영원의 시현



우리는 모두 목표 쟁취를 위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영원에 대한 비젼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영광"을 볼 필요가 있읍니다.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영원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개척자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난 성도들이 꽁꽁 언 강건너로 나부의 평화롭고 따뜻한 고향을 뒤돌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다섯 살의 나이로 네브라스카주 윈터 쿼터즈에서부터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걸어간 내 왕고모에게 그것이 어떠했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투성이 길에서 짐차 뒤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흙과 먼지 속에서 육 개월간이나 여행하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원에서 해산을 해야

했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 그 귀중한 갓난 아기를 얕은 무덤에 묻고 바위로 덮으며, 이리 떼가 그 어린 아기를 먹지 않게 해주십사라고 기도를 드려야 했던 비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그들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읍니다. 폭도들과 화해하고 서쪽으로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았읍니다. 그런데 충실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보았다고 추측합니다. 브리감 영이 솔트레이크 계곡을 보았을 때, 그곳은 언젠가 거기에 있게 되리라고 알고 있었던 집과 교회와 신전이 들어차 있지 않은 상태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을 시현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읍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모두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보았읍니다. 그들에게 평원을 횡단하여 계속 걸음을 재촉하도록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그들은 그 영광을 보아야 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시현이며 간증이었읍니다.

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예는 내 고조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영국에서도 날씨가 좋은 지역이며 푸르고 기복이 진 언덕에서 자랐읍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유한 편은 못되었으나, 그 시대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생활해 나갈 정도는 되었다.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떠나, 대서양을 횡단했읍니다.—비행기도 타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배도 타지 않은 채. 그들은 일단의 성도들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서 배를 띄었읍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배는 폐선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뿐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한 마지막 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빌려 달라고 배 주인을 설득했읍니다. 배 주인은, "흠, 이 배도 항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들은 이 낡고 새기 쉬운 배로 기꺼이 항해를 하려 하는 선장과 선원들을 찾았읍니다.

그들이 약 일주일간 바다를 항해했을 때 무서운 폭풍이 불어 배를 강타했읍니다.

선장은 그런 폭풍우 가운데 당황하기 쉬운 승객들이 선원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승객들이 주갑판 아래의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배의 승강구를 아예 닫아 버렸읍니다. 그러므로 빠져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피신처 아래에서는 성도들의 가재 도구가 들어 있던 무거운 궤짝이 안전하게 묶은 밧줄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열려져 선실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딩굴었읍니다. 그러므로 승객들은 어두움 속에서 다리라도 부러질까봐 침상에서 내려오기를 두려워했읍니다. 승객들은 조리 기구를 배에 실었는데, 모든 남비와 접시가 소음을 내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흩어졌으며, 게다가 어린이들은 밤중 내내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질러댔읍니다.

폭풍이 그쳐서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 주신 데 대해 주님께 즉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읍니다. 나이가 많은 선장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감동했읍니다. 그는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드리는 것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많이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침 여러분은 모두 바다 밑바닥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밤중 내내 배에는 물이 들어차서, 선원들은 남은 배가 폭풍우를 헤치고 지나가는 동안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사력을 다해 퍼냈읍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간밤에 자신들이 그런 위험에 처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했읍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시현으로 보았었다고 추측합니다. 잠시 동안 이상의 의미를 본 것으로 해서 매우 영웅적인 행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을 하며 보냅니다. 즉 학교에 가고, 직장에 오고 가며, 청소와 세탁을 하며, 기타 단조롭고 지루하며 재미없게 보이는 따분한 모든 일들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참으로 그들에게 초인간적인 일을 성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시현을 받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며 이런 사람들을 크게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으로 좋은 상황에서 복음의 축복을 받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읍니다. 그렇게 해준 데 대해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반영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룬 업적을 통해 그 영광을 봅니다.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고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진 좋은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창조자의 마음과 손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NASA(미 항공 우주국)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영광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

말일성도 개척자들은 영원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인간이 이룬 업적을 올바른 견해로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업적이 인간의 업적보다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주 그 영광을 보았읍니다.

나는 NASA와 계약한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훈련 모임에 오가면서 수많은 비행을 하였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NASA로부터 T-38 젯트 비행기 한 대를 제공받아 비행하며 우주 비행사 훈련을 해야 했읍니다. 나는 14,000미터 상공에서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자주 비행하였읍니다. 14,000미터 높이에는 민간 항공기도 없고 피해야 할 산도 없읍니다. 나는 비행하는 동안 교리와 성약을 즐겨 읽습니다. 때때로 날씨가 청명한 날에 펼쳐지는 장관은 정말 황홀합니다.

언젠가의 비행에서는 한 해안선 위에서 미국의 육분의 일 가량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것은 큰 감동으로 내 나라를 내려다 보는 경험이기도 했읍다. 그런 높이에서는 길가에 어수선하게 흩어진 어떤 물건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가족의 분쟁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 아래 세상에 이혼과 차별과 가난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세상을 봅니다.

나는 어느날 밤 14,000미터의 높이에서 미국의 동쪽 해안을 따라 비행을 했읍니다. 그때 거대한 뇌우가 지나갔고 공기는 완전히 맑아졌읍니다. 전 해안은 마치 누군가가 그 위에 한 움큼의 다이아몬드를 뿌려 놓은 커다란 검은색 융단 자락처럼 보였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영광으로 우리는 자연의 경이보다도 더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 새로운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으실 때 그 경건한 집회에 참석하였읍니다. 나는 그분이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베드로와 같은 예언자라는 영적인 시현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작은 계시들은 우리들이 많은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다른 작은 일들을 하도록 도와 줄 수 있읍니다.

나는 우리가 비행할 훈련용 모의 우주선이 건설되고 있는 뉴욕주 빙엄튼에서 열리는 NASA 회의에 가곤 하는데, 그 길에 펜실베니아주 하모니라 불리는 버려진 작은 마을을 방문하곤 했읍니다. 그 근처에는 사스케하나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보이지 않고 철도나 전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곳을 보았을 때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전혀 없읍니다. 강변을 따라 죽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 어디에서 침례 요한이 그 형제들에게 서로 침례를 주라고 가르쳤을까? 이 작은 언덕의 어디에서, 어느 숲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이 형제들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성임하였을까?" 여러분은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의 영적인 분위기를 조금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미조리주 서쪽에 위치한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를 방문하였읍니다. 나는 거기에서도 영광의 똑같은 시현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언젠가 거기에서 매우 특별한 모임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읍니다. 그 모임에서는 아담이 의장이 되어, 모든 경륜의 시대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나타나시고, 아담은 그분께 복천년의 왕국을 넘겨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므로, 선택된 몇몇 신권 소유자들만이 그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큰 영향을 지각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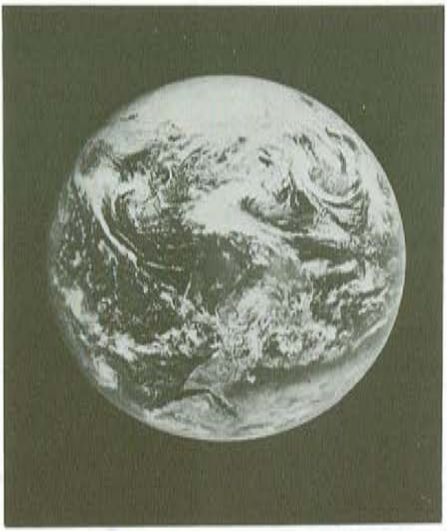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왕국의 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지난 세기 끝 무렵 라이트씨는 인디애나주 엘크하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읍니다. 그런데 켈리라는 교수가 그를 찾아왔읍니다. 켈리 교수는 기술 문제에 관한 조사로 기금을 모금하려 하는 지방 교사였읍니다. 사람들이 라이트씨의 지원을 원했읍니다. 전력을 기울이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줄 믿을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읍니다. 그는 성취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몇 가지 것에 관하여 언급했읍니다. 그는 인간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들어 보지도 못한 안락함과 편리함을 주는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새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읍니다.

이에 라이트씨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그것은 신앙심이 결여된 발상이군요. 나는 이것을 지원해 드릴 수 없읍니다.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있다는 제언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라이트에게는 윌버와 오빌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903년에 처음으로 동력으로 추진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로 비행하면서 영원에 대한 시현을 보았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가하면 사람들은 영광과 비슷한 가짜를 봅니다. 그들은 금으로 된 일곱 개의 성이나 젊음의 샘을 찾느라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허상을 추구하며, 실제적인 것보다는 바보들의 금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영광을 보고 참된 영을 느끼겠다는 소망을 가져야겠읍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주님의 재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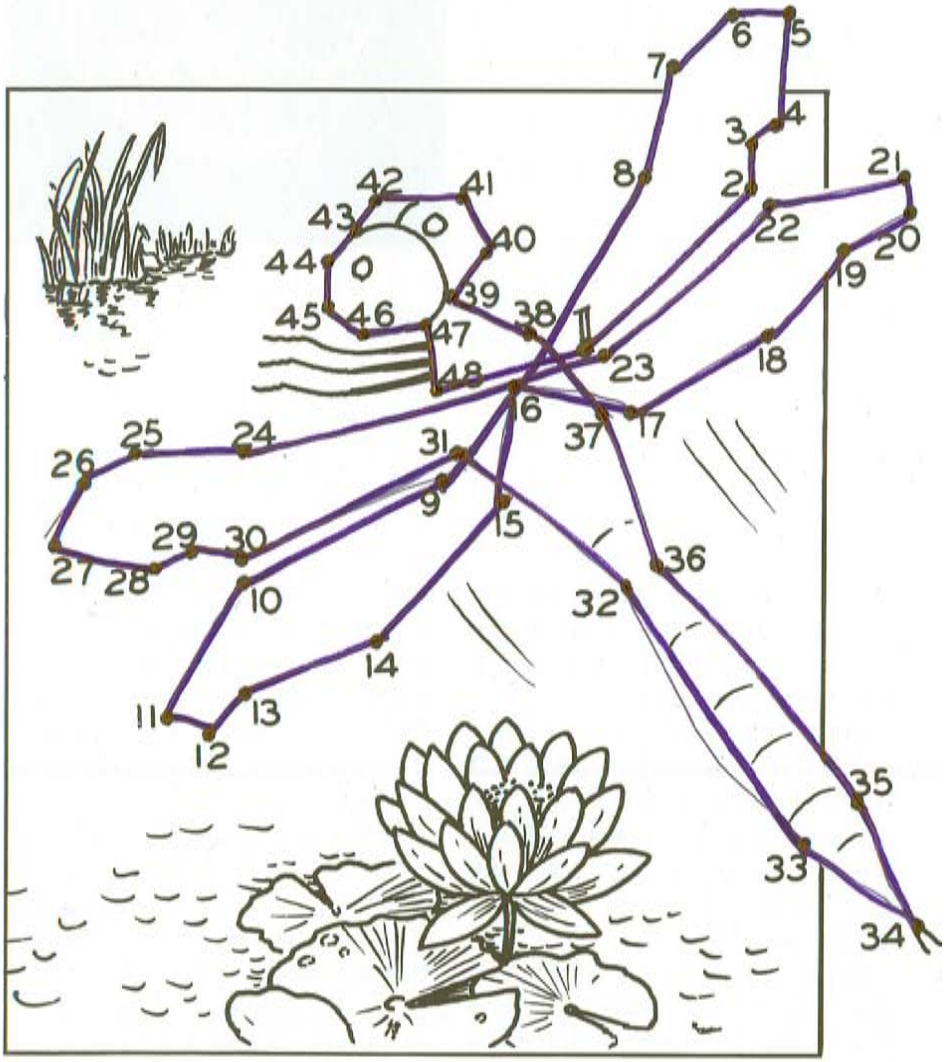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세대 역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원을 횡단하거나 물이 새는 배를 타고 잔잔하게 보이는 북대서양 횡단 항해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을 지탱해 주도록 영광에 대한 시현을 가질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즉 복음, 재림, 복천년의 통치, 해의 왕국 등의 영광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평원을 횡단하거나 먼지가 얼굴에 세차게 불어 닥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평원에 묻어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어떠한 시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세대가 시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세대보다 더 많은 시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을 지탱해 주도록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읍니다. *

린드 형제는 미 항공 우주국의 우주 비행사이다. 그는 1984년 9월에 우주 비행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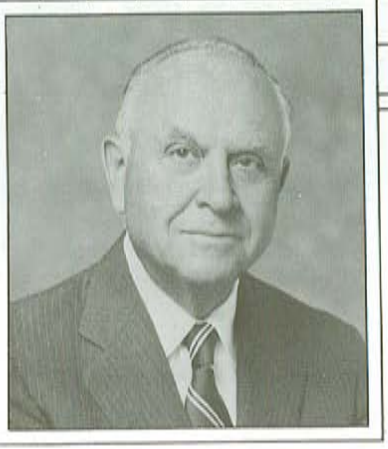
잠자리는 물 속에서 사는 곤충이나 모기, 기타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 먹습니다. 연못 주위를 날아다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잠자리는 조그만 비행기와 같이 보입니다. 잠자리의 날개는 언제나 활짝 펴져 있으며, 잠자리는 다리로 걷지를못합니다.

심심풀이

녹색, 청색, 다갈색으로 칠하세요



친구가 친구에게



재닛 피터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와의 개인 접견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유타주 파밍톤에서 아이다호주 오우클리로 옮겨가 그곳의 초대 감독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브리감 영은 그곳에 목초와 물이 있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주민이 이삼 백 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읍니다. 그것은 내게 다행한 일이었읍니다.

"후에 나의 부친 역시 오우클리의 제1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셨읍니다. 아버지는 내가 여덟 살 때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분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은행가였읍니다. 나는 읍내의 은행에 가서 줄곧 아버지가 책상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광경을 엿보곤 했읍니다. 나는 아버지가 사람들을 돕는 광경을 보며 자랐읍니다. 아버지는 봉사가 복음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읍니다.

"나는 아버지가 주 상원 의원이 되셨을 때 매우 자랑스러웠읍니다. 그는 아이다호주 주의회에서 봉사하는 유일한 몰몬 감독이었읍니다. 누군가가 내게 헤이트 감독 또는 헤이트 상원 의원과 어떤 관계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

곤 했읍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필수 조건을 가르치셨읍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어린 자녀들이 돌보아야 할 암소 한 마리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매일 이른 아침과 저녁에 우유를 짜 주어야 했으므로 소는 어린 나에게 몇 가지 버릇을 들여 주었읍니다. 어머니는 내가 여러 이웃에 배달할 여분의 우유통을 준비하시곤 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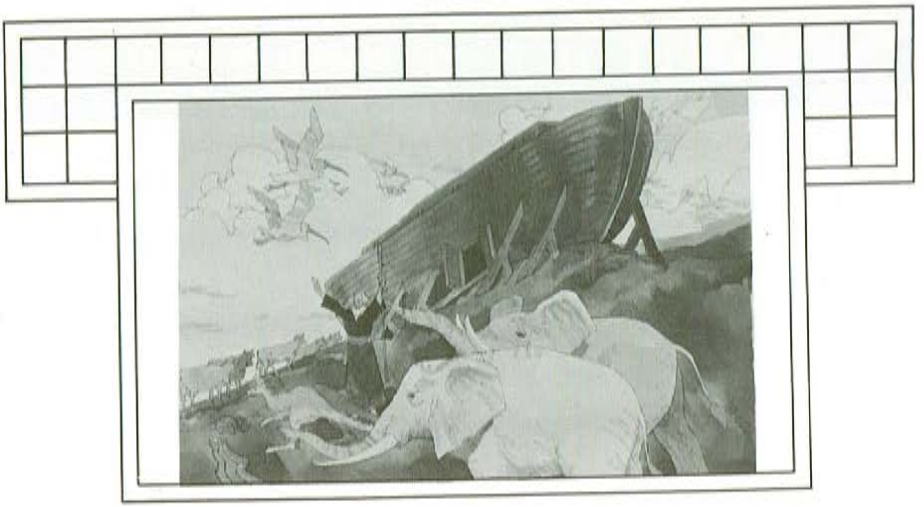
"어린이들인 우리는 나름대로의 재미거리를 만들었읍니다. 우리는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간단한 게임을 즐겼읍니다.

"학교 건물을 제외하고 읍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우리 와드 건물이었읍니다. 우리에게는 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건물을 관리해야 했읍니다. 우리는 운동장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건물을 닦고 깨끗이 해야 했읍니다. 우리는 또한 석탄통을 채워 난로 옆에 두어야 했읍니다.

"우리 집에서는 일요일이 언제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맨 먼저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의자는 테이블 주위에 거꾸로 돌려져 있읍니다.

"나는 성탄절에 장식할 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에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작은 전구를 나무에 매달아 장식하였읍니다. 그리고 나무에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위원회를 지명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각자 성탄절 선물용 양말을 준비하였다가 선물을 받습니다. 물론 특별 성탄절 만찬을 가졌으며, 나의 누이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바이올린을 켜는 동안 가족들은 노래를 불렀읍니다.

"나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할 책임에 대해서도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들을 가르쳐 계명



을 지키게 하고, 승영과 영생으로 인도할 거룩한 의식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이는 자기가 되고자 하는 바를 위해 견전하고 견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으며, 일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께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성약을 맺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경전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는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푸르고 조그마한 책에서 읽었던 경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또한 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나의 어머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우십시오. 구세주는 진실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셨읍니다. 예수님이 온갖 율법에 대해 논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율법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6-40)

"이제 나는 율법사에 대한 구세주의 이 대답이 모든 계명에 대한 답이며, 그 두 가지 계명은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경전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발전시키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명심하십시오." *

목이 마르지 않아요?

에이치 켄트 래플리

영원히 끝나는 종이 울릴 것 같지 않았읍니다. 왜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일년 중에 가장 긴 날처럼 느껴질까? 앨마는 이상하게 생각되었읍니다. 언제 오시려나—

땡그렁 울리는 학교 종소리가 앨마의 골똘한 생각을 흩으려 놓았읍니다. 그는 재빨리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읍니다.

"앨마 커틀러, 천천히 가!" 그의 선생님인 미스 영이 뒤에서 그에게 주의를 주셨읍니다.

앨마에게는 선생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도 않았읍니다. 그는 오늘 서둘러서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니까!

앨마는 먼지이는 시골길에서 바위에 걸려 넘어졌읍니다. 그 바람에 책과 공책이 사방에 흩어졌으나, 그는 팔짝팔짝 뛰며 책과 공책을 모으고 계속 달려갔읍니다. "왜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나를 더디게 할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읍니다.

앨마가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자 어머니는 빵을 굽고 계셨읍니다. 그는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테이블과 부딪히며 빵구울 밀가루를 공중에 구름처럼 날려 보냈읍니다.

"앨마 커틀러! 무슨 일이니?" 그의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야단을 치셨읍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흥분이 되어서요." 라는 대답과 함께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죠?"라고 되물었읍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기차역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단다. 이제 부엌에서 나가 계란이나 꺼내라."

앨마는 급히 닭 우리로 가서 계란을 모았읍니다. 그는 메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계란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아 자랑스러웠읍니다. 그러나 그는 닭모이를 가지러 가다가 곡식통을 너무 세게 건드렸기 때문에, 곡식통이 넘어졌읍니다. 앨마는 곡식을 퍼내려 했으나, 닭들

이 엎질러진 먹이쪽으로 오려고 기를 쓰며 그에게 기어올랐읍니다. 그는 정말 무서웠읍니다.

닭 우리에서 밖으로 나온 앨마는 집으로 달려가며 외쳤읍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직 안오셨다."라고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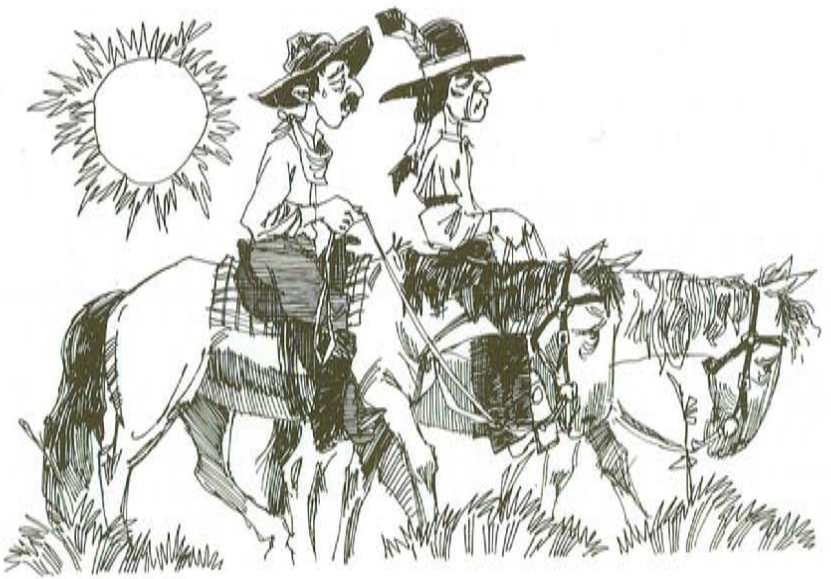
앨마는 부엌 유리 바깥쪽에 있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그의 바지에 묻은 닭털을 떼어냈읍니다. "왜 할아버지가 제시간에 오시지 않지?"라고 그는 투덜거렸읍니다.

"제발, 애야! 숙제나 끝내도록 하고, 할아버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 걱정해라. 오실 때가 되면 어련히 오실까?"

앨마는 일어서서 풀밭을 걷어찼읍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오실 때 왜 자기 혼자만 흥분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집 옆에서 앨마는 돼지에게 주기 위해 감자 껍질과 야채 꼭지 한 통을 들고 갔읍니다. 앨마는 돼지 우리에 이르러서 온 힘을 다해 담장 위로 그 통을 들어올리려 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발이 놓인 곳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미끄러지며 담장으로 넘어졌고 더러운 혼합물이 그에게 엎질러졌읍니다. 앨마는 돼지들이 틀림없이 자기를 보고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앨마는 통을 저쪽에 버려둔 채 집으로 들어갔읍니다. 그가 할아버지에 대해 묻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는 냄새를 맡으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읍니다. "앨마, 너는 돼지랑 함께 놀이라도 했니?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씻으렴!"



앨마는 방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옷을 벗고 손발을 씻었읍니다. 그는 얼굴을 문질러 씻다가 어머니가 인사하시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앨마는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건말건, "할아버지가 오셨다!" 라고 외쳤읍니다. "야"라고 소리지르며 앨마는 재빨리 눈에 들어간 비눗물을 헹구었읍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마자 앨마는 부엌으로 달려갔읍니다. 그는 그곳에 이르기 직전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글쎄요, 아버님. 아버님이 오신 걸 알면 그애가 어떨런지 모르겠군요. 그애는 아버님이 언제 오시냐며 하루 종일 불평을 했고, 하는 일마다 망쳤어요."

앨마는 얼굴을 붉히며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으나, 그때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그곳으로 나오셨읍니다. "앨마! 오, 네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내 귀여운 손자는 잘 지냈니?"

"할아버지, 제가 불평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할아버지가 좀더 빨리 오시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너는 네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었지?" 할아버지가 그에게 물으셨읍니다.

"저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앨마가 말했읍니다.

"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불평에 대해 내게 교훈을 가르쳐 준 이야기를 들려주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여러 해 전, 내가 유타 중부 사막 지방에서 양을 세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인디언 친구 헌컵과 나는 양 떼를 세려고 나간 어느 날, 물을 가지고 갈 것을 깜빡 잊었단다. 그런데 사막은 매우 뜨거웠다. 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는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할아버지는 샘의 위치를 아셨어요?" 앨마가 물었다.

"아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곳도 말을 타고 약 세 시간 정도 가야 했다. 샘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벌써부터 목이 타기 시작했단다. 나는 헌컵을 향해, '헌컵, 목마르지 않나?' 라고 물었어. 헌컵은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아니오,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라고 대답했단다.

"한참을 더 가니, 나의 입술이 너무 말라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또 헌컵을 향해, '헌컵, 목마르지 않나?'라고 물었어. 헌컵은 역시 '아니오,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라고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유일한 생각은 물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말도 너무 목이 말라 거의 걸음을 걷지 못할 지경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언덕을 넘어 샘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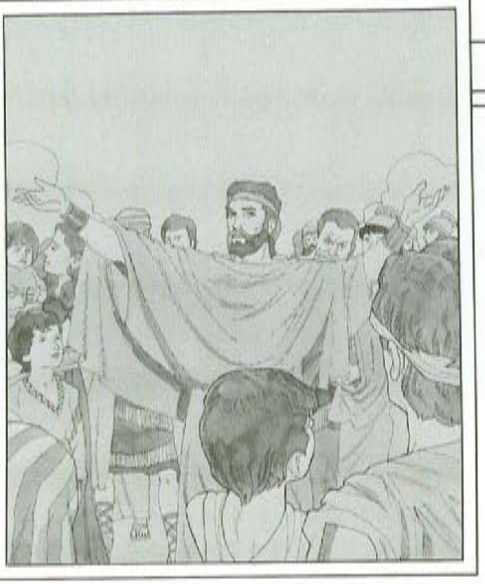
"헌컵은 마치 번개처럼 재빨리 그 샘에 얼굴을 대더니, 샘의 물을 다 마셔 버리려는 듯이 마셔댔다. 그래서 나는 비틀거리며 그 옆에 쓰러져 그를 붙잡고 말했지. '헌컵, 나는 자네가 목마르지 않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헌컵은 물에서 고개를 쳐들더니 나를 보며 '지금은 목이 마릅니다.'라고 말했다.

"앨마,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해보았자 더 일찍 샘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란 걸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앨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그 눈 속에서 엷은 미소를 보았읍니다. *다음에 할아버지가 오실 때는 나도 헌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앨마는 생각했읍니다.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조바심떨지 말고 기다려야지.* *

이노스의 기도

(이노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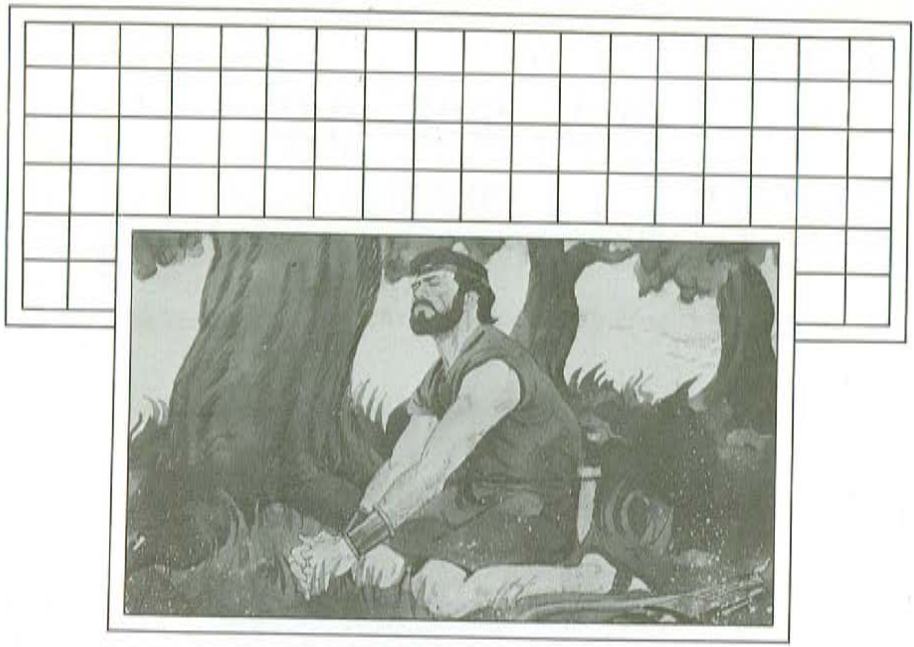


[경전 이야기, PBICO3584KO에서 각색 인용]

어느 날 숲에서 사냥을 하면서 이노스는 아버지 야곱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는 자신이 사냥한 동물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것을 찾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노스는 무릎을 꿇고 겸손한 기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노스는 하루 종일 소리를 높여 주님께 들리도록 기도하며 용서를 빌었다. 밤이 되어도 그는 주님께 간청하기를 계속했다. 이노스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였다.

그는 기도로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 중에, '이노스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를 드렸으므로 이노스는 배우 피곤했어야 했지만, 그는 아직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그의 백성인 니파이인을 생각하고, 온 심령을 주님께 기울여 이번에는 니파이인을 위해 기도했다. 오랫 동안 기도를 한 후에, 주의 음성은 다시 그의 마음에 임하였고, 니파이들은 그들의



"네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고 믿고 신앙으로 구할진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의로움에 따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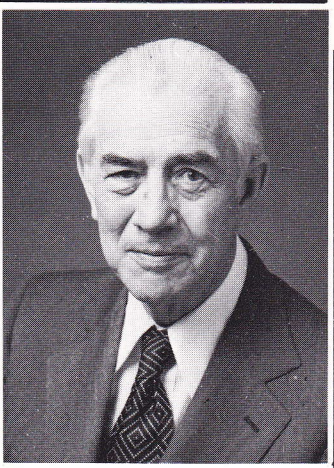
이노스는 이제 매우 사악해진 그의 적인 레이맨인을 위해 기도했다. 비록 그들이 이노스의 백성들의 멸망을 계속 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은 이노스의 마음에 품은 소망이 의롭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고 믿고 신앙으로 구할진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이노스는 또한 니파이인들의 성스러운 기록에 대해서도 역시 염려하였다. 그는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 큰 신앙을 가진 그는 그 기록이 보존되어 훗날 레이맨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노스는 마침내 평화로움을 느꼈고,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키우는 데 여생을 보냈다. 기도와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그 큰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였다. *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별세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지난 1월 11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솔트레이크 밸리 병원에서 별세했다. 1월 16일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피터슨 장로는 만성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러 차례 입원하였으나 따스하고 진실한 미소를 잃지 않는 품위있는 신사의 풍모를 보여 주었다. 그는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회의 책임을 완수하였다. 피터슨 장로가 운명하던 날, 몰몬경에 관한 그의 저술 시리즈 중의 첫권이 될 그의 마지막 저서가 출판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두 딸과 세 명의 손자, 두 명의 증손자, 그리고 한 형제와 두 명의 자매가 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1944년 4월 이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해 왔으며 전세계를 여러 차례 여행하며 교회의 행정을 도왔다. 여러 해 동안 공보 책임자로 일했으며 세계의 여러 곳에 많은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여 선교사들이 방문자들과 친구들을 데려와 볼 수 있도록 교육 보조 자료를 비치해 두었다. 또한 군인 관계 위원회와 교육 음악 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으로 봉사했으며, 20년 이상 범세계적인 상호부조회의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6년 이상 서유럽에서 말일성도의 사업을 관리했으며 서유럽 대륙과 영국 및 남 아프리카까지 관리하였다.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 곳의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몰몬 회원들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었다. 피터슨 장로는 생애의 대부분을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는 기고가로 보냈으며,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 데저렛 뉴스의 편집국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여 총 책임자가 되었고 후에 그 신문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는 일간 신문 뿐만 아니라 큰 출판사의 운영을 포함하여 출판업계에서 50년 이상 종사했으며, 세계 전역에 걸쳐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선교사 소책자를 포함하여 20권 이상의 책과 팜프렛도 저술했다.

이미 작고한 그의 부인 엠마 피터슨 여사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12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들은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

피터슨 장로는 1975년 한국 대회와 1980년 한국 대회 때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